

기고

잊혀진 것들이 쏟아진다



최 기 숙
연세대 국학연구원 HK교수

간이 지나자, 어디선가 조심스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전염성을 지닌 듯 객석의 여기저기로 파고들어, 울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소리로 알리는 어둠 속의 눈물 지도를 형성했다. 팔콘을 꺼안은 두 팔은 머쓱해졌다.

영화는 한때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했던 단속적인 사건이 그 누구에게도 결코 완전히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있었다. 어른들이 ‘절었던 시절’이라고 말했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했던 행위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관찰하고 목도하거나 스쳐 지나간 모든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한때 그들을 지배했던, 또는 스스로 외면했던 무지와 모욕, 슬픔과 좌절, 억울함과 분노, 죄책감은 그동안 자란 키 높이만큼 발육을 늦추지 않았고, 쫓겨나듯 얼어붙어 있거나 억세처럼 웃자라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애초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서로를 스스럼없이 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건 ‘살아가기’라는 삶의 문제이지, 우선적으로 ‘살을 연기’(acting)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영상 속 인물들이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해 둔 오래전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렸을 때, 내 마음속에도 문득

‘그때의 사건’이라 할 만한 것,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섬처럼 의식의 표면에 떠올랐다는 점이다. 영화가 건드린 것은 인물의 과거나 심리, 무의식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의 기억과 망각, 의식과 무의식의 심층이었다. 관객은 단지 영화 속의 인물에 공감해 우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 인해 환기된 자신의 망각된 과거, 가려진 마음, 덮어 두었던 무의식의 님을 장려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고 하나 둘 사람들이 일어설 때에, 좌석 뒤쪽에서 누군가 “열 번 봤는데...”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하고 진지했다. “난 세 번째야”라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한 영화를 기꺼이 세 번이고 열 번이고 보는 심리는 무엇일까.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자신의 과거, 상처, 망각된 어둠과 응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아니었을까.

준파 라히리는 소설 ‘저지대’(마음산책, 2014)에서 “과거는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지대에 고여 있다”고 서술했다. 애써 숨기고 감추며 살았던 것들과 선부른 화해를 구하지 않으면서, 몸 전체로 자신의 과거, 행위, 시간을 감각하는 것이 삶이다. 조금 피곤해지면, 그저 운명이라

는 단어를 내세워 잠시 빚겨 서 있어도 좋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통과해 살아가지만, 하나도 통과해 낸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살아 온 모든 것들은 몸과 마음과 정신과 무의식에 쌓이고 영혼에 आरो세 거진다. 그것은 투명한 문신과 같다.

잊혀진 것이 어찌 상처뿐이라. 우리는 행복과 기쁨, 용서 그리고 어설피게 시도한 사과와 화해까지도 까맣게 잊고 산다. 동시에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몸은 정신보다 강하다. 잊혀진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몸과 정신 위로 쏟아질 때, 그것이 뾰족한 화살인지 보석처럼 빛나는 별빛인지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 모두가 내가 뿌린 내 시간의 씨앗이자 열매라는 사실까지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화살과 빛을 꺼안아야 하는 것이다.

영화가 막을 내렸을 때, 의식의 표면에 떠올랐던 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극장 밖의 생활로 걸어 나오는 제 몸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화살과 별빛이 온몸에 박히고 뿌려져, 희 되며 빛을 내는지도 모른 채, 수선스러운 일상의 한가운데를 가로 지르고 있었다.

“데카르트네 ‘세 번째 성찰’에서 ‘신은 연속적인 매 순간마다 육신을 재창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시간은 지속의 형식이다.”(준파 라히리, 저지대 241쪽)

의료칼럼

지나침은 아니함만 못하다



정 성 일
부평미클리닉 대표원장

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움푹 꺼진 양 옆 볼에 볼륨 시술을 해 얼굴 전체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턱 라인의 비대칭 교정을 위해 약간의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얼굴의 비대칭을 설명하는 일은 의사로서도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예나하면 진료실에서 의사의 조언은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등 통한 체득했기 때문이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체념한 듯 다시 그늘진 표정으로 시술 권유에 동의했다.

이런 경우 필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앞에 놓인다. 관한 오지않으므로 또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긴장되는 순간 손바닥에 일시적으로 맘이 맺히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시술에 만족하지 못하면 완전한 책임은 의사에게 향하기 때문에 철나의 순간 눈빛이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환자 앞에서 그런 필러의 내적 갈등을 표현할 수 없기에 의사들도 감정도 동자임에 분명한 것 같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과유불급’을 떠올리며 ‘욕심내

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를 외치면서 두 달의 기한으로 잡고 단계별로 시술을 시행했다.

이 같은 뿌피성형 시술을 처음 받아 보는 환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 뭔가 결의에 찬 모습으로 시술에 임했다. 다행히 첫 시술부터 환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서 지속적인 추가 시술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부분 줄었다. 한 달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서 필러는 슬슬 마무리를 준비하며 남아있는 코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밝게 웃으며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처음으로 환자의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의문이 퍼져 조각이 맞춰지듯 해소됐다.

본인은 소위 ‘주걱턱’에 굉장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양악수술을 몇 번 고려해 봤으나 수술은 겁나서 매번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더 늦기 전에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위험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육아에 지친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으로, 이런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니

괜스레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져 두 문분출하고 있을 즈음에 지인 소개로 병원에 오게 됐다. 처음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술에 동의하고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본인 인상이 조금씩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필러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다. 말에는 가슴이 몽글해지기까지 했다. 의사라는 직업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필러는 성형을 권장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성형이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다. 간단한 시술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면, 비용대비 효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고려해 볼만 하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물론 동서양을 통하는 미인의 기준도 없고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각자의 기준으로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 자신에게 필러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기고

‘문학’의 창으로 들여다 본 ‘캐나다’



최 진 실
광주문화재단 국제교류 담당

은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한다.

올해 열린 2017서울국제도서전에 캐나다가 건국 150주년을 맞아 ‘스포트라이트 컨트리’로 지정이 되어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캐나다 작가 2명을 초청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광주 지역민들도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캐나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교류행사로 지난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캐나다 공립 도서관이 추천하는 최고의 책 ‘빨강이 최고야’ 저자 ‘캐시 스티븐슨 작가 초청강연’이 개최되었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 광주 아이들 100명과 캐나다 작가와 ‘그림책’을 통해 만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캐시 스티븐슨 작가의 대표작 ‘빨강이 최고야’와 ‘아무도 듣지 않는 바이올린’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배웠을까?

오국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함께 읽어 보고 작가의 그림책 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은 이제 ‘빨강이 최고야’ 책을 보면 ‘캐나다’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캐나다 작가와의 만남이 아이들

에겐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

두 번째 순서로 캐시 스티븐슨 작가와 광주 작가와의 만남은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참석한 작가들은 캐시 스티븐슨 작처럼 다른 일을 하다가 또는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림책, 동화, 시,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들을 위한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후 늦은 나이에 작가가 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빨강이 최고야’ 작품이 제일 인기가 높았다면 광주 작가들에게 ‘안녕, 아이비’ 작품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안녕, 아이비’ 책은 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둔 오빠의 심정과 함께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감정까지 예민하고 섬세한 필체로 적어 내려간 소설이다. 작가들은 캐나다와 한국의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심정, 이를 작품에 담고자 할 때의 제한점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공유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 점에 대해 캐시 스티븐슨 작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캐나다와 광주 그림

책, 동화 작가들은 자신들이 써내려갔던 작품들에 녹아져 있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서로 알아가고 ‘작가’라는 공통된 범주 안에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층 넓은 사고와 직관을 얻어갔을 것이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다양한 국제 교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류담당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류행사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문학’을 통해 ‘캐나다’를 들여다보며 다른 나라를 알아가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또한, 캐시 스티븐슨 작가가 광주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중 “여행은 방문 전에 책으로만 봤던 나라들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면서 자연스레 그 나라가 나의 품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했다.

이처럼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미 있는 국제교류 행사를 기획하여 광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국제교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社說

중외공원 남은 녹지마저 회색으로 물들면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도시공원 10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기로 한 가운데 그 대상지에 ‘중외공원’이 포함되자 환경·도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외근린공원(243만9135㎡)은 중앙근린공원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넓은데 이미 공원으로 개발된 곳은 32만8940㎡이며 나머지 211만915㎡는 미조성 지역으로 이번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중외공원이 일곡공원과 운암산공원을 잇는 광주의 생태축으로 보고 있다. 광주를 띠 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는 환상녹지 축의 안쪽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거대한 녹지대여서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는 운암제와 용봉제를 품고 있으며 위치상으로도 광주의 관문이자 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공간이다. 국립광주박물관·문화예술회관·시립미술관·시립민속박물관·비엔날레전시장 등 공영·전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

이다.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문화공원이자 시민의 힐링공간이다.

하지만 이처럼 드넓은 부지 중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특례사업 대상지로 개발되면 광범위한 녹지 훼손은 물론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광주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보존공간 지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문화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공원부지를 사들일 수 있는 행편이 안 된다면 시민적 합의를 통해 부지 매입을 위한 공채 발행 등도 검토해야 한다. 꼭 보존해야 할 광주의 녹색 인프라이자 생태축인 중외공원을 파괴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모두 함께 나서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협약이 체결되면서 운장현 광주시장의 민선6기 핵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기도 한 만큼 향후 정부 지원과 함께 전국 확산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엇그제 운 시장과 운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22명의 노사민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광주시의 일자리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있었지만,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정 임금(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편, 노사 책임경영 구현 등 4대 원칙을 근간으로 한 이번 기초협약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장밋빛 결실을 맺

기까지에는 선결돼야 할 난제도 많다.

우선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점과 새 정부의 율해 일자리 추경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이 연구 용역비 3억 원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게다가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구현 등은 매우 예민한 이슈여서 이해 당사자인 기업체 노사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마중물로 삼아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함으로써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95년 10월 1일 광주 금남로. 장갑차와 녹색 포니 승용차, 전국체육대회대형 아치, 대치 중인 계엄군과 시민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총소리. 어느새 그것은 1980년 5월로 돌아가 있었다.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 ‘꽃잎’ 촬영 현장엔 구름 인파가 몰렸다. 군중신의 엑스트라 3500여 명과 시민 등 1만여 명이 5월 그날이 영화에 담기는 장면을 지켜봤다. ‘광주의 진실’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면서.

문화부 소속 ‘병아리 기자’였던 나는 영화 촬영 현장 취재가 처음이라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세세한 부분을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현장의 압도적인 느낌은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다. 특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주자색 원피스에 꽃핀을 꽂은 ‘소녀’ 이정현의 모습이 다.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열네 살 소녀의 촬영장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다. 영화가 완성된 후 스크린에서 그녀의 연기를 볼 땐 탄성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8월 개봉)가 화제다. 1980년 5월 서울의 한 택시 운전사가 광주에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운전사 역을 맡은 송강호 특유의 유쾌한 연기로 시작된 예고편은 이렇게 끝난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송강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 글썽이는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 관객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만다. “누구나 생각하는 인간의 상식과 도리에 관한 이야기다.” “미국과 아픔보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 송강호는 이렇게 말했는데 ‘택시운전사’가 2017년 대한민국에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기대된다. 포스터 속 ‘택시 기사’가 환하게 웃고 있어 너무 좋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편물 발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